

# 샤오황띠 현상?

김강석 / SBS 보도국 차장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면서 이젠 인구감소를 걱정할 처지에까지 오게 됐다. 하지만 아직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방향을 틀기엔 시기상조라는게 중론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최근들어 한 자녀 가정이 급증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과보호와 이로인한 응석받이나 이기주의적 성향이 더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세계 최고의 인구대국 중국이 더 심하다면 옳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대부분 가정이 한 자녀를 갖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훨씬 넘는다.

10억 인구를 우려하며 몸살을 앓던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펴면서 인구증가율은 점점 떨어졌다. 이젠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가 문제는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한자녀 세대의 어린이와 청년 등의 행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소황띠(小皇帝) 현상이라 부른다. 가정에서 하나 밖에 없는 자식을 황제처럼 여기며 받들어 키웠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중국에서는 이들 샤오황띠들이 버릇없고 자기만 생각하며 자립심도 없는 망나니가 돼 버렸다는 탄식을 하고 있다. 주로 사회학자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학자들은 이들이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

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내수와 소비의 상당량을 어린이부터 청년층에 이르는 이들이 소화해 내고 있어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자본력과 구매력도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연안 9개 대도시의 6세에서 15세까지 어린이들 즉 샤오황띠가 용돈과 세배돈으로 인민폐 56억위안 우리돈으로 8,960억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이보다 30%가 더 많은 1조2,320억위안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자료는 밝히고 있어 아이들의 지금력(?)은 갈수록 막강해 지고 있다.

샤오황띠들의 월 평균 지출규모 또한 매년 급성장하는 추세다. 1990년대만 해도 1,000위안(한화 16억원)을 넘지 못하였으나, 지난해는 약 2배반이 증가한 우리돈 40억원으로 이들의 씬씀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내 업체들이 이들 샤오황띠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현상도 이전 자연스럽다. 부모들의 호주머니를 가장 많이 털어가는 세력으로 등장했지만 부모들로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샤오황띠들은 과연 어떤지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PPFK